

보도 일시	2022. 8. 12.(금) 즉시배포		
담당 부서	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	과장 전한성	사무관 하손숙 (044-205-4211) 최지수 (044-205-4214)
	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	과장 정윤경	장학관 송인발 (044-203-6358)
	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	과장 박용민	연구관 배종수 (043-870-5574)
	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	과장 김지영	사무관 김진형 (044-201-6754)
	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	과장 김현선	사무관 김현정 (043-719-2255)
	경찰청 교통안전과	과장 이서영	경 위 성정만 (02-3150-0634)

정부,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통식품 등 6대 역점 분야 발표 - 최초 법정계획으로 「어린이안전 종합계획(2022~2026)」 수립 -

-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하여 「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(2022~2026)」을 8월 12일 확정·발표하였다.
 -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은 정부의 어린이 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5월에 제정된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마련하게 되었다.
-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 △교통안전, △제품안전, △식품안전, △환경안전, △시설안전, △안전교육 등 6대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< 교통안전 분야 >

- 안전하고 편리한 등·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.
 -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*를 지정하고,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.
 - *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되면 어린이 통행 우선권이 보장되고 차량은 서행·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며 안전표지·보행친화적 도로포장 등 환경개선

-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(신호기 등)에 대한 적정성을 검증하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는 전용 정차구역을 활성화한다.
-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비중이 높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통학로가 비슷한 학생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와 등·하교를 같이하는 워킹스쿨버스(walking school bus)를 활성화하고,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등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한다.

< 제품안전 분야 >

-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물리적(미끄러짐·추락 등)·화학적(유해물질 노출) 안전기준을 지속 정비하고, 불법제품 유통을 방지한다.
-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제품은 주요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위해요소를 평가하는 등 물리적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, 국제적으로 신규 추가되는 유해물질도 지속 모니터링한다.
- 구매대행, 소셜네트워킹서비스(SNS) 등 어린이제품 신규 유통경로에서의 불법제품을 감시하고, 핵심어 분석을 통해 쟁점(이슈)이 되는 제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‘인공지능(AI) 기반 정보수집 시스템’을 구축한다.
- 영세기업에 대해 시험·인증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, 품목별 상세한 표시사항을 안내하는 ‘품목별 표시사항 안내서(가이드북)’을 온라인으로 보급하여 기업이 안전한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.

< 식품안전 분야 >

- 어린이의 활동 공간과 식습관 변화를 고려하여 식생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, 어린이 급식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.
- 어린이의 식품 구매 장소가 학교 주변 문구점·매점에서 편의점으로 변화됨에 따라 편의점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고카페인 과잉섭취 예방 활동을 하고,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가맹점 매장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관리한다.
- 어린이 식생활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·학교운영위원 등을 전담관리원으로 우선 지정하여, 학교 주변 식품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토록 함으로써 관리 내실화를 도모한다.

-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발생하는 어린이 급식소의 식중독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자동 온도관리 체계 등 지능형 급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,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등록을 확대하여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한다.

< 환경안전 분야 >

- 어린이용품과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의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한다.
 - 위해성평가 대상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방법을 마련하여 사용 제한 환경유해인자를 신규로 지정하고, 사전에 검증된 살생물물질·제품만 유통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.
 -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에 사용되는 마감재·바닥재 속 중금속(납)과 프탈레이트*(phthalate)류 가소제의 기준 개정**에 따라 개정된 기준이 효과적으로 실제 공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고, 소규모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을 지원한다.

*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는 화학 첨가제

** 납 600 → 90ppm 프탈레이트류 가소제 0.1% 이하(신설) ※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(21.7.6), '26년부터 전면 적용

< 어린이이용시설 안전 분야 >

- 데이터 기반의 종합적·체계적인 관리로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, 어린이 안전교육 제도의 정착을 추진한다.
 - 학교 관련 재난통계, 학교 주변 교통사고 통계 등 공공데이터와 연계하여 학교안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, 사고 장소·원인 등 학생안전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학교별 맞춤형 사고 예방방안을 제시한다.
 - 「어린이안전법」에 따라 학교·학원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가 매년 4시간 이수하여야 하는 응급처치교육 제도를 정착시키고, 어린이 안전교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교육 실적을 관리한다.

< 안전교육 분야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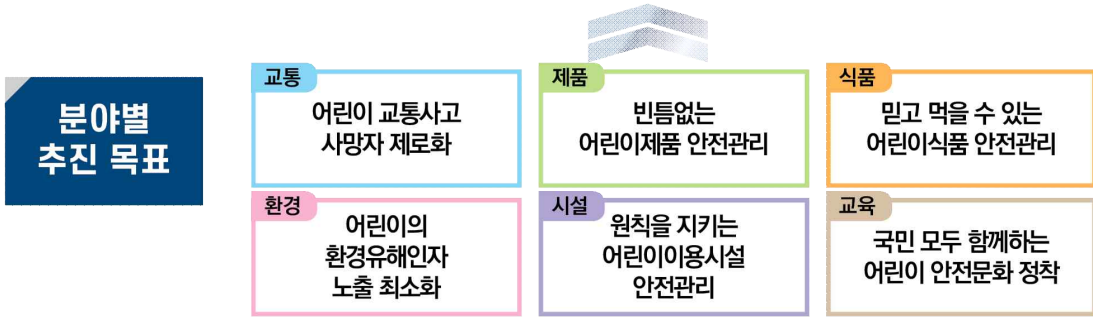
- 어린이안전 체험교육의 질을 높이고,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를 확대하여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육을 활성화한다.
 - 가상현실(VR)·증강현실(AR)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실감 나는 교육을 실시하고, 건물탈출·직업안전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.
 - 교육시설 등 기반(인프라)이 부족하여 어린이가 안전교육을 받기 어려운 지역에 체험시설을 탑재한 특수차량을 활용하여 순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어린이 안전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한다.

- 행안부와 관계부처, 지자체는 이번에 발표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의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고,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.

-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미래 우리 사회의 주역인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, 저출산·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”라면서,
 - “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원활한 협업을 바탕으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	책임자	과 장	전한성 (044-205-4210)
		담당자	사무관	하손숙 (044-205-4211)
			사무관	최지수 (044-205-4214)
<공동>	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	책임자	과 장	정윤경 (044-203-6353)
		담당자	장학관	송인발 (044-203-6358)
<공동>	산업통상자원부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	책임자	과 장	박용민 (043-870-5677)
		담당자	연구관	배종수 (043-870-5574)
<공동>	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지영 (044-201-675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형 (044-201-6754)
<공동>	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현선 (043-719-2252)
		담당자	사무관	김현정 (043-719-2255)
<공동>	경찰청 교통안전과	책임자	과 장	이서영 (02-3150-2052)
		담당자	경 위	성정만 (02-3150-0634)

비전	미래의 주인,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
목표	어린이 안전 최우선 생활환경 개선 및 사회문화 조성



분야별 정책과제	어린이교통 안전관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어린이 통학로 안전인프라 확충 2. 어린이 교통안전 위반행위 저감 3.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조성
	어린이제품 안전관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정비 2. 불법·불량 어린이제품 감시·관리 3. 안전한 어린이제품 인프라 조성
	어린이식품 안전관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 2. 어린이 식중독 저감화 지속 추진, 스마트한 급식관리 3. 어린이 활동공간 주변 식품안전관리
	어린이환경 안전관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 2.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기준 적용 및 실내공기질 관리 3. 환경유해인자 사전예방 관리체계 마련
	어린이이용시설 안전관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학교안전사고 예방·관리체계 확립 2. 유원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3.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인식개선
	어린이 안전교육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육 활성화 2.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강화

추진체계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어린이안전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2. 연도별 중앙부처·지자체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3. 어린이 안전정책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
-------------	---

□ **수립 배경**

- 어린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*하여 어린이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

* 14세 이하 10만 명당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'15년 3.1명에서 '20년 2.4명으로 감소하였으나, 여전히 OECD 주요국('15년 영국 2.0명, 노르웨이 1.1명)에 비해 높은 수준

-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「어린이안전법」에 따라 '종합계획' 수립 추진

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(20.11.27. 제정 시행)

제7조(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의 수립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9조에 따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.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8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한다.

□ **종합계획 주요 내용**

①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

- (어린이보호구역 안전관리)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 확산, 도로·교통안전시설물 설치기준 준수 및 적정성 여부 검증 체계 도입
- (안전한 통학로 확보) 보·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, 보행로 설치 곤란 장소에 일방통행 지정, 교내 안전한 보행로 마련

② 빈틈없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

- (안전기준 정보제공) 안전사고 분석 및 위해요소 평가 등을 통한 화학적·물리적 안전기준 정비, 어린이·성인 공용제품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
- (제품 관리 인프라 조성) 수입·통관단계 어린이제품 모니터링,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상품분류기준(GPC*) 적용, 어린이제품 시험인증 인프라 확충

* GPC(Global Product Classification) : 제품식별을 위한 글로벌 표준(아마존, 이베이 등에서 사용)

③ 믿고 먹을 수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관리

- (식생활 안전관리) 알레르기 유발식품 안전정보 제공, 고카페인 음료 과잉섭취 예방활동 실시, 수입식품 기준 적합성 관리
- (스마트한 급식관리) 식재료 보관·조리·배식 등 급식관리 전반 업무 지능정보화,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* 연계 급식소 확대

* 집단급식소 정보 및 식재료 납품 정보 연계로 동일 식재료 납품시설에 식중독 발생주의 경보 발송

④ 어린이 환경유해인자 노출 최소화

- (환경유해인자 안전관리)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평가,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 물질·제품 사전승인제도 단계적 도입
- (활동공간 안전관리) 어린이 활동공간 마감재료 등에 함유된 중금속(납)·프탈레이트류 가소제(7종) 검출기준 개정*에 따른 실효적 적용, 실내공기질 진단 컨설팅 확대

* 납 600 → 90ppm, 프탈레이트류 가소제 0.1% 이하(신설) ※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(21.7.6), '26년부터 전면 적용

⑤ 원칙을 지키는 어린이이용시설 안전관리

- (학교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) 학교계획 수립·평가 프로그램과 학교안전 각종 시스템을 통합한 학교안전지원시스템 구축·운영
- (안전교육 제도 정착) 학교·학원·보육시설·복지시설·체육시설·유원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응급처치교육 제도* 정착

* 어린이안전법에 따라 매년 4시간 안전교육 실시(소아심폐소생술 실습교육 2시간 포함)

⑥ 국민 모두 함께하는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

- (안전체험관 활성화) VR·AR·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 실감나는 체험교육 실시, 부모참여 등 가족단위 프로그램 활성화
- (맞춤형 안전교육)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활용한 소규모 안전체험공간 운영, 찾아가는 맞춤형 안전교육 서비스 확대

□ 향후 일정

-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심의·의결('22.8월)
- '22년도 시행계획 수립·시행('22.8월~), '23년도 시행계획 수립('22.12월)

□ **교육부 소관 분야 및 추진과제 : 5개 분야, 11개 정책과제**

<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 >

- ① 어린이 통학로 안전인프라 확충(교육부, 행안부, 경찰청 등)
 - 보도 또는 보행로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는 학교부지를 활용한 통학로 설치 및 교내 안전한 보행로 마련
 -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* 설치 확대
 - * 무인교통단속장비(CCTV), 교통신호기(신호등), 옐로카펫(시인성 강화 시설) 등
- ② 어린이 교통안전 위반행위 저감(교육부, 행안부, 국토부, 경찰청 등)
 - 어린이통학버스 관계부처 합동점검,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구역 종합점검·개선 등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점검 실시
- ③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조성(교육부, 행안부, 문체부, 경찰청 등)
 - 지역 단위 교통안전 유관기관 간 협업* 강화
 - * 지역교통안전협의체 활성화(교육청·지방국토관리청·도로교통공단·지방경찰청·지역연구원) 등
 - 저학년 대상 등·하교 워킹스쿨버스 활성화 및 ‘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’ 등 지속 실시

<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 >

- ① 식생활 안전관리(교육부, 식약처 등)
 - 나이스(NEIS) 학교급식시스템을 활용하여 알레르기 안전정보를 학생·학부모에게 모바일로 제공
- ② 어린이 식중독 저감화 및 스마트한 급식관리(교육부, 복지부, 식약처 등)
 - 어린이 급식소별 전담관리제 운영, 학부모 중심 ‘급식 모니터링단’ 구성·운영,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추진
 - 식중독 교육 전문강사 인프라 구축, 식중독 담당자 교육 및 급식위생·개인위생 관리 등 교육·홍보 강화

③ 학교 주변 식품안전관리(교육부, 식약처)

- 학부모 등을 학교 주변 식품안전관리 전담관리원으로 우선 지정하고, 학교주변 편의점 등 밀착 관리

< 어린이 환경안전 관리 >

①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(교육부, 환경부 등)

- 학교 등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필터 청소·교체 현황 등 적정·유지 관리 여부 점검 실시(지자체·교육청)
 - *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학교 공기정화장치 운영 및 실태 집중 점검 실시

< 어린이이용시설 안전 관리 >

① 학교안전사고 예방·관리체계 강화(교육부 등)

- 공공데이터* 연계하는 종합적·체계적인 학교안전 실태조사 방식 도입 및 빅데이터 분석 기반 학교별 맞춤형 예방방안 제시**
 - * 학교 관련 재난 통계, 학교 주변 교통사고 통계, 범죄 통계, 학교폭력 데이터 등
 - ** 정밀조사분석기법을 활용한 위험요인별 관리방안에 교통안전취약 학교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
- 학교안전사고 통계의 국가승인통계 지정 추진,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등 학교안전사고 통계관리 강화
- 학교계획 수립·평가 프로그램*과 학교안전 각종 시스템**을 통합하는 학교안전 지원시스템 구축·운영
 - * 「학교안전법」, 「도로교통법」 등 개별 법률에 따라 개발·운영 중인 정보시스템
 - ** 실태조사, 안전교육계획·실적보고, 재난훈련계획, 교직원연수, 통학버스 정보 등 11개 시스템

② 어린이 이용시설 주변 안전사고 예방활동(교육부, 행안부, 경찰청 등)

- 유치원,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요인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 및 단속 실시(교통안전, 식품안전, 어린이이용시설)

< 어린이 안전교육 >

① 체험형 어린이 안전교육 활성화(교육부, 행안부, 산업부 등)

- VR·AR 등을 활용한 체험교육으로 효과성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, 가스·화생방·건물탈출·직업안전·제품안전 등 프로그램 다양화

- 체험시설을 갖춘 특수차량을 통해 어린이 안전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순회하며 맞춤형 체험식 안전교육 확대
- ②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교육 강화(교육부, 행안부, 해수부, 경찰청 등)
 - 어린이에게 친숙한 캐릭터, 그림 등을 활용하여 생활 속 사례 중심의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 콘텐츠 개발
 - 물에서의 적응력 향상 및 위기상황에서 자기생명보호 역량을 기르기 위해 생존수영교육의 생존기능을 강화하고, 초등학교원 생존수영 연수 확대
 - 교통안전, 식품안전, 수상안전, 소방안전 등 유형별 어린이 안전 교육 강화